

‘오징어 윤, 쌍길 철’의 추억

홍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한자 혼용 시절, 기자들의 독법(讀法)

“오징어 윤(允), 쌍길 철(喆), 고무래 정(丁), 당나귀 정(鄭)….”

필자가 1980년대 후반 언론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요즘 말로 소위 ‘아날로그 시대’였다. 지금같이 컴퓨터에 의한 전산 제작(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하는 게 아니라 납 활자로 글자를 하나하나 모아 기사 틀을 만들고 그것을 찍어 내던 시절이었다.

모든 기사는 종이 원고지에 손으로 직접 써야 했다. 공무국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납 활자가 갖춰져 있었는데 문선공(文選工)들이 원고지를 보며 활자를 뽑아냈다. 문선 작업이 끝나면 조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자 없이 기사를 잘 뽑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게라(교정쇄)’가 편집국 교열부로 올라왔다.

당시는 교열을 볼 때 ‘允, 喆, 丁, 鄭’ 같은 한자를 정식 훈 대신 글자 형태를 따서 ‘오징어 윤, 쌍길 철’ 식으로 편하게 불렀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아마도 ‘탱크 설(高)’이 아닐까 싶다. 성(姓)씨 중 하나인 이 글자는 정말 탱크처럼 생겼다.

신문에서 한자를 제법 쓰던 시절이라 당연히 한자 지식은 기자에게 필수였

다. 더구나 지금처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든 기사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마감 시간에 압박해 외부에서 급하게 전화로 기사를 불러 달 때도 많았다. 그럴 때 서로 글자를 정확히 주고받기 위해 쓰던 ‘기법’이 바로 ‘오징어 윤, 쌍길 철’ 방식이었다. 가령 같은 유 씨인데 ‘兪’ 씨인지 ‘劉’ 씨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인월도 유, 묘금도 유’ 식으로 글자를 파자해 읽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틀림이 없었다.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 방편으로 발전한, 기자들만의 독법이었던 셈이다.

그 시절 어문 담당 부서는 편집국에서 가장 시끄럽고 활기찬 부서였다. 십수 명이 앉은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교정쇄에 박힌 ‘오징어 윤, 쌍길 철’을 읊어 대야 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한 사람은 교정쇄를 읽고 다른 한 사람은 원고를 보면서 글자가 이상 없이 뽑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교정쇄를 읽어 대다 보니 목소리에서 밀리면 원고 잡은 선배에게 호된 꾸지람을 당하던 게 편집국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던 풍경이었다. 그러니 어문 기자들에겐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 상태가 필수 점검 사항이었다. 맑고 깨끗한 소리로 교정쇄를 읽어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혹여 전날 과도한 음주로 목소리가 탁해지거나 더듬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곧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다소 황당한 시절이었다.

납 활자 시대의 언어 유산들

“누가 이렇게 많이 갈매기를 잡아 왔어?”

신문사 편집국 한 귀퉁이에서 갑자기 ‘갈매기’ 얘기가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일까? 지금은 신문사에서 문선부라는 데가 없어졌지만, 납 활자 시절 공무국 문선부는 중요 부서였다. 특히 마감 시간이 압박해서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다음 날 신문 수십 면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문선공이 일일이 뽑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어문 기자가 어법에 충실히 한다고 열심히 갈매기(띄어쓰기 표시인 ‘√’를 뜻하는 은어)를 그렸다가는 선배들에게 치도곤을 당했다. 띄어쓰기 하나를 바꾸려면 조판 과정 중 연쇄적인 글자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오자를 잡는 것은 같은 자리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니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하려다 보면 한 단에 들어가는 글자가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행 전체를 움직여야 할 때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선 다음 행, 그다음 행까지 연이어 글자를 조정해야 했기에 때로는 기사 전체를 움직여야만 했다. 그래서 문선부에서는 이를 제일 싫어했다. 자연스레 기자들이 띄어쓰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고 웬만한 것은 붙여 쓰는 게 용납됐다.

당시 기준으로 띄어쓰기는 ‘단연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원활한 신문 제작을 방해하는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비록 맞춤법에는 틀리지만 웬만한 것은 붙여 쓰던 신문 기사의 관행은 그런 오랜 낡 활자 시대의 제작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도 그런 ‘고난의 시절’을 거쳐 온 신문 기자들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여전히 대충대충 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날로그 시절에 어문 기자들은 ‘조물대감’으로도 불렸다. 신문의 전반적인 표기·표현에 관해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어문 기자들은 당시 ‘꺾발(?)’이 대단했다. ㅎ일보에서의 일이다. 교열 기자가 출근해 보니 편집국 한편에 ‘교열부는 造物大監’이란 글귀가 써어 있었다. ‘해와 달을 바꾸는 권능은 조물주밖에 없느니라...’라는 주석과 함께.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 교열 기자의 실수로 전날 신문에 ‘日’ 자가 ‘月’ 자로 나간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후 교열 기자에게 조물대감이란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지금은 전설이 되다시피 한 1960~1970년대 낡 활자 시대 얘기다.

당시엔 ‘淸涼里’나 ‘原麥 20萬 톤’ 식으로 명사류는 물론 ‘犯하다, 加하다’ 같은 서술어도 죄다 한자로 적었다. 또 기사 첫머리에 으레 따라붙던 ‘측문한

비에 의하면'과 같은 일본어 투 말을 '들리기론(지금은 이도 '~에 따르면' 꼴로 변했다)' 식으로 바꿔 쓴 것도, (원로 교열 기자이신 민기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대 들어서다.

'大統領이 글자 하나가 빠져 '大領'으로 나가는가 하면, '共和黨'을 '共產黨'으로 개명하고, '社會正義'를 '社會主義'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장녀'를 순식간에 '창녀'로 만들고, '복지부'가 받침 없는 글자로 들어가 아찔했던 사건들도 비밀비재했다. 한자와 문선(文選)의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언어의 미술'인 셈이다. 이 모두가 지금은 지난 시절 아련한 기억의 편린으로 남았다.

디지털 시대 언어의 '불편한 진실'

1990년대 들어 시티에스(CTS)가 도입되면서 신문 제작 환경이 급변했다.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당연히 원고지도, 교정쇄도 없어졌다. 어문 기자들이 매끄럽고 맑은 목소리로 교정쇄를 읽을 필요도 없어졌다. 지금 어문 담당 부서는 편집국 안에서 가장 조용한 부서가 됐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질 뿐 다른 소리가 나올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신문 제작의 디지털화가 20여 년간 진행돼 오는 동안 기자들이 만들어 온 신문의 말도 시간의 축을 타고 명멸해 왔다. 그것은 우리말의 변천과 궤를 같이하는데, 좋게 말하면 시쳇말로 아날로그 언어에서 디지털 언어로 진화(?)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에서 표방한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가 제대로 구현된 것은 가장 큰 변화다. 1896년에 창간했으니 120년 전의 선구적 해안이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 빛을 보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신문의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기사를 한글 위주로 쓰게 됐다. 인터넷을 비롯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미디어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신문 기사도 독자가 좀 더 읽기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 정보기술(IT) 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에 딱 맞는 한글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빛을 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꼭 신문에서 한자가 사라진 부작용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관련성은 있는 것 같다.

신문 제작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선 기자들의 언어 의식에 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요즘 수습기자들의 우리말 능력은 낱 활자 시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지만 정작 한자는 자기 이름도 쓰기 힘든 형편이다. 굳이 한자가 아니더라도 한자어를 비롯한 어휘 등 우리말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SBS TV가 지난 5월 새로운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스타골방 대첩 좋아요>도 제목이 생뚱맞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제목만 봐선 이게 무슨 뜻인지, 프로그램 성격이 뭘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쓰인 ‘대첩’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에 이르면 더욱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첩(大捷)은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것’으로, 이미 싸움이 끝나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 쓰는 말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귀주대첩이니 한산도대첩이니 할 때의 그 대첩을 가져다 쓴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목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따로 노는 느낌이다. 한자 의식이 약해지다 보니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히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대첩이란 말을 아마도 ‘대전(大戰)’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이 말을 ‘큰 싸움’, ‘한판 승부’ 정도의 의미로 쓴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면접관’은 아무 데서나 써도 되나

“면접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민아)

“말해 봐요.”(면접관)

“종합 계획, 사업 등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꼭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라고 해야 합니까? 외국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것 아닌가요?”(민아)

걸스데이의 멤버 ‘민아’가 최근 합류해 열연 중인 KBS 1TV <안녕 우리 말>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지난 4월에 방영된 ‘면접의 정식’ 편에서는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본 민아가 외국어를 남용하는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파급력이 큰 공공 언어와 청소년들의 언어 개선을 위해 제작·방송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생기는 우리말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직업의식의 발로일까, 여기에도 옥에 티가 있었다. ‘면접관’이란 표현이 그것이다.

면접관에서 ‘-관(官)’은 ‘공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감독관’을 비롯해 ‘경찰관, 법무관, 사령관, 소방관’ 같은 데 쓰는 말이다. 사전의 예에서도 보듯이 모두 정부 관리 따위를 말할 때 쓴다. 뒤집어 말하면 민간 기업의 직책에 쓰기에는 적절치 않는 말이다. 민간 회사의 사원 채용 기사를 보면 ‘면접관’이란 말이 많이 보인다. 민간인에게 ‘○○관’이란 표현을 쓰면 어색하게 느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면접 담당자’나 ‘면접인’, ‘면접원’ 등 다른 적절한 말을 찾아 써야 한다.

하지만 한자 의식이 약해진 탓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말의 이런 미묘한 용법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대충 뜻만 통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휘력이 약해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쓰는 것인데, 이는 우리말 육성과 진흥의 관점에서 당연히 역주행이다.

가뜩이나 우리말에는 개념어가 부족한데, 단어의 의미가 흐려지면서 용법

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데나 말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문 언어에서 범하는 흔한 오류 중 하나인 ‘역임’을 봐도 그렇다. 역임(歷任)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침’을 뜻하는 말이다. ‘A, B, C 등을 역임하다’처럼 나열할 때 써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를 ‘대변인을 여덟 번 역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 씨는~’, ‘그는 ○○전자 기술총괄사장을 역임한 뒤~’ 식으로 많이 쓴다. 아마도 역임을 역투(力投)나 역설(力說) 같은 말을 연상해 ‘(직무에) 힘껏 임하다’ 정도로 해석해 쓰는 것 같다. 하나만 보여줄 때는 ‘거쳤다/말았다/지냈다’ 등을 적절히 골라 써야 하는데 어휘력이 달라니까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앞에서 잘못 쓴 예도 ‘대변인을 여덟 번 맡아(지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거친) ○○○ 씨는~’, ‘기술총괄사장을 지낸 뒤~’ 식으로 써야 할 곳이다.

현실적으로 신문에서 꼭 썼으면 좋을 한자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가령 젊은 사람들 가운데 ‘햄릿형(型) 성격’과 ‘S자형(形) 도로’에서 ‘형’을 구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모르니까 그냥 한글로만 써도 충분하다 넘겨 버리면 될 일일까. 그것이 진정 우리말을 살리고 키우는 길일까. 또, 공수(空輸)는 ‘항공수송’을 줄인 말로, 비행기로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좀 멀리서 가져온다 싶으면 자동차로 가져오든 배로 가져오든 무턱대고 ‘공수해 온다’ 식으로 쓴다. 안타까운 점은 요즘 우리말 실태를 보면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다.

100년을 이어 온 ‘민유총기’ 망령

그런가 하면 있는 말을 제대로,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씩 무언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일이 있다. 얼마

전 집 앞 가게를 지나는데, ‘임대 문의’란 방문이 붙어 있는 걸 보았다. 순간 ‘임대 문의라…’, 주인이 임대하는 것일 터인데 누구한테 문의한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점포를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한테 ‘임차’에 관해 문의하라는 뜻으로 썼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분화된 개념으로 언어를 더 정교하게 써야 하는데 우리는 있는 말도 구별 못하고 두루뭇술하게 쓴다. 그러니 “사무실이 비좁아 다른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다.”라는 우스운 표현이 나온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이를 ‘임대’해 쓴다고 하는 것이다.

예전엔 ‘대통령이 사열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망발을 하던 게 우리 언론의 언어 수준이었다. 그나마 요즘 신문에선 ‘사열하다’를 제대로 쓴다. 하지만 여전히 ‘자문을 구하다’란 표현은 많이 쓰인다. 이 말도 웃기는 표현이다. 자문을 마치 ‘현명한 답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맘대로 말을 쓰게 놔둬도 되는 것일까? 자문(諮問)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질문과 비슷한 말이다. 그러니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무엇을) 자문하다’ 식으로 써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어법에도 맞는 말이다.

더 기막힌 현실은 우리말에서 한자 의식은 많이 약해졌는데, 뿌리 깊은 일본식 한자어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말을 해치는 중요한 병폐라는 것을 많은 이가 지적하지만 정작 이런 말을 쓰는 공무원 사회에는 마이동풍인 것 같다. 그런 말을 생각 없이 받아쓰는 신문이나 방송 등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민유총기 일제신고’란 표현이 요즘도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로 검색되는 것을 보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쓰는 모양이다. 이 말은 100여 년 전 우리 신문에서도 보이니 그 뿌리는 일제가 만든 행정 용어일 터이다.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에서 총독부 조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1928년 9월 23일 자)를 보면 ‘작년 말 현재 민유총기는 권총, 엽총을 합하여

사만 일천삼백칠십삼 명인데 그중에는…’이란 대목이 나온다. ‘민유총기’라니? 아마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를 말하는 듯하다.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을 접어 둔다면, 이를 ‘民有총기’라고 쓰면 뜻은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글로 ‘민간 보유’를 줄여 ‘민유’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뜻이 쉬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문 언어든 일상의 언어든 독자가 그 말을 읽고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면 언어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차집관거’도 정체불명의 암호 같은 말이다. 한글학회는 《한글새소식》 525호(2016. 5.)에서 독자 투고 형식으로 이 ‘차집관거’의 풀사나움을 지적했다. 차집관거(遮集管渠)는 ‘막을 차(遮), 모을 집(集), 대롱 관(管), 도랑 거(渠)로 된 말이다. 하수나 빗물을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인공 도랑(물길)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투고자는 ‘대롱물길’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쉽게 들어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빗물도랑’ 정도가 좋지 않을까(이 용어는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한국경제신문》 2016년 2월 22일 자 다산칼럼에서 제시한 것이다). 국민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공무원은 태연히 쓰고 있는 것이 우리말의 아픈 현실이다.

과거 낱 활자 시대에는 그나마 언어의 정체성이 확보됐다. 누구나 공감하는, 같은 말을 썼다. 말에 대한 의미 해석이 그만큼 보수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 모바일 시대다. 누구나 기사를 표방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무수한 실험 언어가 난무한다. 세대마다 쓰는 말이 다르고 공유하는 게 다르다. 자신들끼리만 아는 ‘또래 언어’가 판친다. 우리말의 의미 공유가 좁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소통 실패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킬끼빠빠(킬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기),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인터넷에는 이런 유의 조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은 한순간 유행어로 끝나겠지만, 그마저도 소통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자칫 우리말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사회가 진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속속 등장할뿐더러 기왕에 있던 개념도 세분화해 수많은 갈래를 만든다. 우리말이 이를 쫓아가느냐의 문제가 당장 눈앞의 과제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단어·용어가 없으면 외래어든 뭐든 물밀 듯 들어오고, 우리말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언중의 생활 언어를 일선에서 담아내는 신문 언어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신문 언어를 거르는 장치들은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게 될까? 그렇다고 “쌍길 철, 오징어 윤…” 하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문 언어에 ‘철학’을 담아야 할 시대다.